

[종합·해설]

■ ‘北 경의·동해선 운행 취소’ 배경과 전망

北 대남파트 움직임 군부서 급제동

북측이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24일 운행계획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시험운행이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향후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까지 후폭풍을 불고 올 전망이다.

북측이 이날 우리측에 보내 온 전문문을 통해 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그동안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달 16~18일 열린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는 군 당국간 실무접촉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보일 때에도 시험운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북측은 22일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3일에는 탑승자 명단을 교환하자는 우리측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북측은 이 과정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 연계한 셈이다.

우리측은 군사보장 합의 체결이 어렵게 되자 23일 탑승자 명단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군사보장을 갈음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북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북측 군부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남북이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시험운행을 위한 분 단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무산된 점은 내각이나 대남 파트의 시험운행 강행 움직임이 북측 군부가 급제동을 건 것으로 풀

‘군사보장’ 트집 전통문 통해 일방 통보 DJ 6월 하순 방북 일정 영향 줄 수도



24일 북측의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취소 통보로 당초 25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경의선 열차가 우두커니 역내에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이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측 군부의 목소리가 남북관계를 뒤흔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번 과정은 시험운행 무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제위)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6월 하순 방북마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시험운행이 무산됨에 따라 DJ의 경우 열망했던 열차 방북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 자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험운행 취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측 여론의 급반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5월 차관급회담을 시작으로 복원돼 온 6월 하순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의 진전과 경협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 찬 물을 끼얹은 결과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북측의 전격 취소 조치는 대북경협과 교류협력에 무게를 두는 우리측 대북 여론을 급격하게 냉각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군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에 따라 북측이 금융제재 문제로 경색된 6자회담 국면 등 정세를 감안해 밖으로 향하는 대문을 걸어잠그는 조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작년 11월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북미 간 긴장관계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런 비판적인 관측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시험운행 중단이 물고울 파장이 적지 않지만 앞으로 DJ 방북이 성사될 경우 오히려 상황을 급반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지씨 헤폰 생활비’에 초점 범행목표 누구인지도 조사

검찰, ‘박대표 피습’ 수사

지난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의 정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대표 테러범 지중호(50)씨의 범행동기와 자금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헤폰 씹스미’ 돈 출처는=기 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지씨가 한달 평균 10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수십만원 어치의 휴대전화 통화비를 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누가 지씨에게 돈을 대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

더구나 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당의 소개로 C정수기 회사에 취직했다”, “의원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눈길’도 끌리고 있다. 합수부는 지씨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몇천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빌려 썼다는 진술 및 정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지씨의 초등학교 친구 H씨는 24일 “지씨가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10만원이나 20만원씩 용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지씨가 무도장과 같은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여성들과 어울리며 돈을 빌리거나 또는 뜯어내서 생

활했다는 첩보에 대해 일부 확인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남강해진 여당=열린우리당은 테러범인 지중호씨의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씨가 청송감호소를 가출 소환 뒤 인천의 경생보호공단 생활관에 머물면서 우리당의 인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취업을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검·경 합동수사부는 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정한 결과 지씨가유해들어 열린우리당 의원 인턴지역구 사무실에 7차례 전화하고 취직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테러동기는 ‘억울한 옥살이?’=지씨는 합수부에서 전두환 정권때 만들어진 보호감호제도도 자신이 14년 4개월에 이르는 오랜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민정당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지만 처음부터 목표가 오 후보였는지, 박 대표였는지, 박 대표 용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지씨가 무도장과 같은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여성들과 어울리며 돈을 빌리거나 또는 뜯어내서 생

략자 지중호씨를 추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여론조사서 잇단 ‘차기대통령’ 1위

‘피습사건’ 지지도에 영향

‘동정여론 일시적’ 분석도

지난 20일 발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이 여야 정당뿐 아니라 대선주자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습사건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표가 이명박 서울시장과 고건 전 총리를 누르고 대선주자 지지도 1위로 올라선 것. MBC가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 대표는 21.5%로 고건(21.1%)과 이 시장(18.1%)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CBS가 22~23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표는 27.2%로 이 시장(21.9%)과 고건 총리(17.7%)를 따돌리고 수위를 기록했다. 박 대표는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는 지난해 10·26 재보선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잠시 수위로 부상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표가 이처럼 대선주자 지지도 1위로 올라선 데는 일단 피습사건에 따른 동정여론이 크게 작용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피습사건 후 박 대표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한 몫했다는 시각도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美 망명 6명 기자회견

지난 5일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 6명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서 탈북한 계기와 중국에서 겪었던 참상, 북한 수용소의 실상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질은 선그라스에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나온 이들은 약 1시간50분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건너와 인신매매와 성폭행, 구타 등 그동안 겪은 인간 이하의 삶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남자 2명, 여자 4명인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천미(20·여·가명)씨는 맨 먼저 증언에 나서 5차례나 인신매매 당하고 북한으로 여러 차례 끌려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연을 전했다.

4년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한 천미씨는 2003년 베이징에서 붙잡혀 복송됐다가 미성년자로 풀려나 재탈북했고 2만위안에 팔려가 강제로 결혼했지만 빠져나와 한국으로 향하려다 2004년 2월 베이징 대사관에서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으나 자유를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두번째로 증언한 한나(여·가명)씨는 예술체조 지도교원으로 근무하던중 군복무중이던 남편의 사고로 갑작스레 가계 형편이 어려워졌고

당시 12살짜리 딸아이의 스포츠웨어를 사줬다는 일백여대 국경을 넘는 물건 배달을 하던중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다고 밝혔다.

1998년 탈북해 한차례 복송됐다가 재탈출한 나옴미(여·가명)씨는 “중국인에게 팔려가 3년간 갖은 멸시를 받았고 출산 6개월만에 북한에 다시 끌려가야만 했다”면서 북한 수용소에 있을 때 출산이 임박한 한 여성이 강제로 낳게 수술을 받았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들어가던 참상을 증언했다.

또 요한(가명)씨는 왜 미국을 택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 가면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한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채 나쁜 이미지를 남겨 취직하기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탈북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를 원하며 그러면 피맛힌 원한이 풀릴 것”이라며 “남북이 통일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견장에는 한인교회연합(KCC) 관계자들과 신문,방송 취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배고파 탈북-인신매매-구타 당했다”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운명을 바꾸고 희망을 주는 책!!**

누가, 그 어린 소년에게 흥을 쓰야하고 망명을 꾀했는가?
왜, 그의 운명을 갈무리 했고 피눈물 나는 절망을 가져다주었는가?
한 남자의 땀속까지 시리게 밀려오는 생존적인 운명적 삶.
이 책은 펼쳐는 순간 당신은 한 남자의 지독한 운명에 중독 될 것이다.

평재원 충격 실화 소설
운명이야기

왜 해외에서까지 이 소설에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 조국의 땅을 찾아오는 것일까?

- 이 소설을 10만이나 읽고 그 눈물의 비탄에 빠져 수년 키폐고비용을 빌트 지원한 — 일본의 60비
- 7명이 사극한 출격사선의 현장에서 저자가 세세한 숫자의 인물로 생명을 걸진 — 미국의 10비
- 평민화일의 이름을 빼고 들고 이 땅을 갔다가 이 소설에 빠져진 편이 훨씬더 눈물 흘린 — 영국의 1비
- 지살 가족의 죽을 등 혁명을 믿고 제기한 시인가, 소설을 읽고 한국에 부활을 걸심한 — 호주의 5비
- 중국인들로 발견 못한 특별한 숫자의 운명하에 감행하며 땀은의 숫자를 부역하고 달려온 — 중국의 10비

나와 맞는 숫자를 알면
富와 大吉運을 당신의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전화번호 · 급용메일번호 · 자동차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숫자들, 저자가 개발한 행운의 숫자를 만드는 법이 책 속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가진 고유숫자가 엄청난 투자가치를 창조한다. 숫자만 잘 선택해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성공한다. 그리고 대담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눈물로 써 내려간 충격 실화 소설!

신원 · 홍영 인문학연구소 특별비 회원
鄭再原 저/376쪽/8,800원

저자 정재원 40대 초반. 서울 출신. 평민 인문학연구소 대표. 10년간 해외에 60여명, 국내에 100여명, 미국에 100여명, 일본에 100여명, 영국에 100여명, 호주에 100여명, 중국에 100여명, 기타 해외에 100여명, 총 600여명, 1000여명의 운명을 바꿔 달았다. 그의 책은 1000여개, 1000여개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책은 1000여개, 1000여개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책은 1000여개, 1000여개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책은 1000여개, 1000여개의 사랑을 받았다.

신정음양연구소
T. 021765-4724~5 F. 021765-4728
Http://www.sinyeung.com 한글로만! 신정음양
예약 전화 051-817-1600 011-886-5767
서울 · 함정길 103 수석주최 장수호